

차례

전도관 7편

- 一. 동방의인
- 二. 누가 동방의인이신가?
- 三. 동방의인 영모님은 조희성님에게 합일되시어 일체로 완성되시니 이분이 동방의 의인이다.

一. 동방의인

이만제단시대! 때는 1956년도. 6.25전쟁이 막 끝난 암울하기 이를 데가 없을 때였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무엇하나 희망적으로 생각되는 일을 찾아보기가 힘들 때이다. 이때의 한국정부는 미국사람들이 보내주는 원조 물자에 의해서 겨우 나라살림을 꾸려 나갈 수가 있는 때였다.

2003년대인 지금 우리는 아프카니스탄의 국민들의 암울한 참상과 또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당시의 우리나라가 그와 같았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어쨌든 당시 1956년경의 우리나라는 참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시절이었다. 우국(憂國)을 한다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별 별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곤 했지만 국민들은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때였다. 일부 정치가나 또는 학문에 조예가 있다고 하는 부류에서는 인도의 시성(詩聖)인 타고르의 시를 곧잘 인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아시아 빛나는 황금시대에
코리아는 그 빛을 밝힌 한 주인공이었다.
그 등불 다시금 켜질 날엔
동방은 찬란히 온 세계를 밝히리.

타고르

타고르는 인도 캘커타에서 1861년에 태어난 시성(詩聖)이라고 칭송을 받은 시인이다. 그가 어떻게 하여 한국을 '미래의 세계를 찬란히 비추 등불'이라고 찬양을 했는지 알 수가 없으나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찬란한 등불같은 의의였다. 1961년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혁명의 주축들이 역시 이 타고르의 시를 암송하면서 한국의 희망한 미래를 다짐했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주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국민들은 그와 같은 말에 귀를 귀우려 듣고 우리나라 미래에 희망을 가지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어떻게 하면 미군과 잘 사귀어서 그 미군과 같이 미국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그와 같은 일이 성사된다면 최고의 행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들 생각하곤 했다. 사실 그와 같이 하여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때에 박태선 영모님이 출현하신 것이다. 그분의 출현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겠다. 다만 박태선 영모님이 이만제단 시절에 전도관 신도들에게, 좀더 나아가 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암울한 한국 국민들에게 박태선 영모님은 가슴이 벅할 정도의 희망찬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로서는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신앙촌 건설과 최고급품의 제품을 생산해내어 모두에게 놀라움을 주면서 '하면 된다'는 용기를 심어 주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천순민족임을 일깨워주시어 모두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 '하면 된다'는 구호하에 세계를 놀라게 한 '새마을운동'은 바로 박태선님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박태선 장로님과 박정희 장군 두 분은 우연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16회)

전도관 7편

一. 동방의인



구세주는 동방의 명골 나라 한국에서 출현한다

정 속에서 영육간의 군주(君主)로서 역할을 하게 짜여져 출현하신 분들이시다. 하늘의 사람 박태선님의 영적인 지원과 지시 하에 박정희 장군은 군사 혁명을 일으켜 육의 군주가 되어 한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위대한 천순민족으로서의 대운을 활짝 열어 나가기 시작을 한 것이다. 이 두 분이 합작하여 세계 인류를 구원시킬 위대한 민족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한 때인 것이다. 이 시점부터 한국의 국운은 활짝 열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開闢以來初逢運 三八木運數皇出 世人 개벽이래초봉운 삼팔목운시황출 세인

不知塵心事...弄弓歌 부지한심사 농궁가

"개벽된 이래 처음 맞는 좋은 운인데 이 운은 삼팔목운으로 나오시는 박태선님이 첫번째 영적인 황제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일을 세상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한심한 일이다."

이 말은 4500년 전의 우리나라의 위대한 선각자인 남사고 선생이 기록을 한 예언서의 내용이다. 앞에서 설명을 한 것같이 이때 삼팔목운되시는 박태선님

의 출현으로 이 분이 영적인 군주가 되시고 육적인 군주인 박정희 대통령이 합심하여 하늘이 한국에 내려주시는 대운을 활짝 열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때를 시점으로 두번째 구세주 정도령 세번째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하시면서 세계를 주도하여 구원시킬 위대한 민족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계를 밝히는 등불로서 온 세계에 활짝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 단군민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다.

"단민족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신33:22)"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산 속에 숨어서 아무도 알지 못한 사자와 같은 왕중왕이 갑자기 드러나서 세계를 놀라게 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박태선님이 출현하시는 시점을 시작으로 세번째 구세주 정도령님의 출현하심으로 인하여 온 세계 인류 앞에 세계의 왕중왕 구세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세주 정도령님의 나라 한국은 온 세계에 선망의 대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타고르의 시에 쓴 동방의 등불로 세계에 밝게 비치는 민족이 된다는 말은 틀림없이 맞는 말인 것이다.

그러면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당시의 너무나도 암울한 한국민족에게 희망을 선포하시면서 한국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선택된 민족임을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박태선님의 말씀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1) 성경 속의 동방은 한국이고 동방의 인은 한국인이다. 동방의인은 왕중왕이다

1956년 원효로의 이만제단(二萬祭壇)에서 신 박태선 영모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에 예언된 동방나라는 우리 한국나라다"라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엄청난 말씀을 던지셨다. 우리 한국이 동방나라라는 것이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성경 속의 모든 예언은 유대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와 같은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희망이 없어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성경 속에 예언된 동방나라는 우리나라라고 말씀을 던지시니 다들 믿을 수가 없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동방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엄청난 말씀이 되는 것이다. 동방인 한국이 전세계를 통치하게 되고 또 세계 각국에서 황금과 보화를 수천 척의 배로 싣고 와서 한국에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사60장).

이렇게 예언된 동방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영모님은 단호하게 증거하고 계신 것이다. 그와 같은 동방나라인 한국에서 동방의인(東方義人)이 출현하는데 그 동방의인은 온 세계의 왕들을 그분의 발앞에 굴복시키는 왕중왕이라는 것이다(사41:2). 그와 같은 동방의인이 한국에서, 한국사람 중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가 한국에서 나타나는 동방의인에게 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니 그분은 분명 왕중왕이시다.

너무 놀라서 큰 맘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같은 느낌이었다. 그와 같이 힘차게 증거하시고는 박태선 장로님

은 동방의인은 박서방이 될지 김서방이 될지 최서방이 될지 하시면서 연막을 치시는 것이다. 영모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현실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길 없이 실의와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마치 바다에서 방향을 못 찾아 갈팡질팡하는 배가 빛을 비추주는 밝은 등불을 발견한 것 같은 감격스러운 말씀임에 틀림 없었다. 더욱이 앞에서 소개한 타고르의 시속에 "아시아의 등불인 한국에서 그 등불이 다시 밝혀져 온 세계를 비출 것이다." 라는 타고르의 시는 지금 박장로님이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동방이 한국이며 그 한국에서 세계를 다스릴 희망의 등불과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박태선 장로님이 혹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전 기독교계가 다 그렇게 말하며 규탄을 하였으니가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4500년 전에 남사고 선생의 비결서이다. 그곳에는 정확하게 박태선 장로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다.

錦繡江山東東方 天下聚氣運道鮮 始發 金수강산아동방 천하취기운회선 시발 中原樹化國 列邦歸藩民父母國 宗원근화국 열방제민부모국 萬乘天子之王 만승천자왕지왕

未運歌(말운가)
"금수강산인 우리 동방나라여! 천하의 운이 한국으로 돌아오구나! 처음으로 세계인류의 중심국이 될 무궁화꽃이 피는 나라인 조선국이며! 세계열방의 부모국이 될 것인데 이는 만승천자되시는 왕중왕이 계시기 때문이다."*

도덕경 43장 해설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무엇일까? 아마 세상의 이치로 보면 물, 공기라고 할 것이다. 물과 공기는 어떠한 미세한 틈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채울 수도 있어서다. 그런데 사실 정녕 부드러운 것은 마음이다. 노자는 이러한 사실을 바로 물을 비유로 들어 인간의 신비하고 오묘한 마음을 노래하였다. 물을 최상의 선이라고 비유하면서

물에 귀
꽃, 하
늘

도덕경 해설



天下之至柔

천하지지유

천하의 가장 부드러운 것은

을 나는 새, 산골짜기를 흘러내리는 계곡물 등 지구상의 아름답고 생명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물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듯 마음의 생명성과 부드러움과 고귀성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덕경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또 다른 주제, 그것은 무위(無爲)에 관해서다. 보통 사람들의 행

은 대개 유위(有爲)의 행이다. 이는 반드시 괴롭고 고통의 씨앗이 된다. 자존심과 이기심, 그리고 욕심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세상 대다수가 유위의 행으로 살다가 잠시도 편안할 날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도인은 무위의 행을 추구한다. 무위란? 인간의 이기심과 감정,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 순수본성(양심)이 행

함을 이른다. 순수본성은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게 행하는 음덕(蔭德)을 근본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무위에 대해서 독자 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이해하고 있을까? 대개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함이 없다는 것으로만 막연히 알고 있다. 정확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마음의 부드러운 본성과 또 다른 측면의 자유자재한 능력이 인간의 본성과 어떻게 관련지어 문장에서 삶의 철리(哲理)를 비유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지, 또한 무위의 행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관심 있게 살펴보자. 간결하고 함축된 문장 속에 인생의 철리가 오롯이 담겨 있다.

天下之至柔(천하지지유): 천하의 가장 부드러운 것은

馳於天下之至堅(치빙어천지지견): 천하의 가장 단단한 것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게 된다.

無有入於無間(무유 입어무간): 모양이 없어서 틈새 없는 곳도 스며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吾是以知 無爲之有益也(오시이지 무위지유익야): 나는 이것으로써 아는 바, 무위가 다른 존재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고 있고.

不言之教 無爲之益(불언지교 무위지익): 무위로써 이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오.

天下希能及之矣(천하희능급지익): 천하 사람들이 이러한 이치를 능히 행할 사람은 드문 것이오다.*

김주호 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한다.